

여권 盧 서거 후폭풍 '당정청 전면 개편' 싸고 대립

쇄신파-지도부·靑 총돌 일촉즉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민심 수습 방안을 놓고 한나라당이 큰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 쇄신헌위와 친이(친 이명박) 소장파가 국정쇄신책의 일환으로 당정청 전면개편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총돌, 여권 전체가 내용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정청 개편 요구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다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도 친이-친박(친박근혜)간 대결구도로 흐를 수도 있어 여권 내부의 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쇄신파 "당정청 전면개편"=한나라당 쇄신헌위와 친이 직계 소장파들은 2일 지도부 사퇴와 조각 수준의 당정청 전면개편을 공식 요구했다. 4·29 재보선 참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민심이반 현상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정청이 일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당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극약처방을 내리지 않으면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쇄신헌위와 소장파 의원들은 오는 4일 의원연찬회를 지도부 압박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연찬회를 전후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청와대 "단합 우선"=당내 쇄신파의 당정청 전면개편 요구에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서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조기전당대회 개최 등을 주장하며 기자회견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명진 권택기 김용태 정태근 임해규 조문환 의원. /연합뉴스

친이 소장파도 '당 전면 쇄신' 등 촉구

박희태 대표 "위기 상황 단합이 우선"

박희태 대표 측은 "쇄신파의 요구는 회생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분열해서는 안 된다"며 사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도 쇄신파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에 여론을 수렴하고 쇄신을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그 방법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쇄신파의 요구를 수용할 경

우, 노 전 대통령 서거 및 북한 사태 등 '내외외환'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이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쇄신안을 수용할 경우, 자칫 이를 인정하는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각한 후유증 불가피=쇄신 논란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온 여권은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전

망된다.

특히, 청와대가 쇄신안을 수용할 경우 '떠밀리는 모습'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고, 외면했다가는 '그들만의 정부'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여권의 고민을 깊게하고 있다.

여기에 소장파들의 당정청 전면개편 요구가 이상득 전 국회의장의 등 이른바 '비선라인'에까지 밀고 들어 가면 사태는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 양상으로 비화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쇄신위에서 조기 전대 카드를 거두는 대신 청와대에게 적절한 시점에 개각 및 청와대 진용 개편에 나서는 선에서 중재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용섭 "민주당은 과거 반성하고 통합 나서야"

러한 요구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한 적극적인 혁신과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 시점에서 민주당이 누구를 배척하기 보다는 모두를

포용하는 통합의 바다가 돼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국가적 손실로 끝나지 않고 역사적 투자가 승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변화하고 혁신하는 정당이 되는 것이 '비노무현'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발표한 바 있는 혁신위원회 하부 빨리 가동, 보다

새로운 모습을 국민에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



"단임제 대통령 비극 끝내자"

盧 서거 이후 정치권 등 개헌론 탄력 9월 정기국회서 개헌특위 구성 '솔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주장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모든 권력이 집중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4년 연임제 개헌론'을 제안했었다.

내각제를 주창해온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민장 기간이던 지난달 25일 "대통령에 대한 견제 장치가 명확하지 않고 허술한 점도 있지만 문제는 퇴임 후 가혹하리만큼 무한하게 책임을 진다는 점"이라며 "근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라고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1일 열린 국회 기관장 회의에서도 "다시는 이 땅에 노 전 대통령과 같은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논의해

야만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27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등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통령은 헌법정신을 구현하여 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개헌을 국회에 제안해야 한다"며 "최소한 개헌논의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했다.

국회외장 전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최종 개헌 연구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인 김종민 전 의원은 "(4년 중임제나 권력 분점형 정부 형

태 등을 넘어선) 총괄적인 개헌 논의의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 179명이 소속된 국회 개헌연구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현안 질의 응답 등을 통해 개헌이 언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여야간 충돌이 예상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도 개헌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대부분이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론과 MB악법 반대 투쟁 전선이 흐트러지는 측면이 있어 당장 개헌을 논의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를 통해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이나,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평가 라운지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장 외유성 해외시찰 비난

○이명자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박홍수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등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북한 핵실험, 경제난 등 국가적 위기 속에서 외유성 해외시찰을 떠나 비난이 일고 있다.

2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명자·박홍수 운영위원장 등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13명과 수행 공무원 11명 등 모두 24명이 지난달 31일부터 6일까지 5박7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사마르칸트 등으로 해외시찰을 떠났다. 경비는 1인당 250만~300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천연가스 생산 실태와 유네스코 문화유산 비교 등을 명목으로 해외시찰에 나섰지만 크렘린궁, 차르박 호수공원, 사마르칸트 유적지, 아무르터무르 광장 등 관광성 목적이 상당수 포함돼 눈총을 사고 있다.

더구나 각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노 전 대통령 추모와 관련해 각종 행사들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시민들의 비난 목소리는 더욱 거세다.

'문화수도 시민포럼' 창립총회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콘텐츠를 연구하는 단체

인 '문화수도 시민포럼'(이사장 박홍석 KBC 사장)이 3일 오후 2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연다.

이날 창립총회는 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의 사회로 박홍석 이사장의 인사말, 박광태 광주시장·박준선 민주당 최고위원, 조영택 의원,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최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어 포럼에서는 전남대 김영기 교수가 사회를 맡고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또 전남대 유재한 교수는 '국제문화교류도시로서 광주의 전략과 비전'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민주 광주시장 봉하마을 봉사단 모집

○민주당 광주시당은 노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봉하마을 자원봉사단을 수시로 모집한다.

광주시당은 당직자와 당원·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1차로 오는 6~7월 1박2일간 노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봉하마을에 파견한다. 이들은 봉하마을에서 국민장 기간동안 마을에 쌓인 쓰레기 청소와 모내기 활동을 펼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국 최고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영섭

경 찰

개강 매월 초(합격시스템)

※6개월과정 광주지역 서재형,오경수 합격

| 6개월과정 | 1년과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7일 원성 3회 반복학습 영어 7분이 된 수강생 한화 수강료 25%(D/C) 교재 5%(D/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월 원성 6회 반복학습 영어 7분이 된 수강생 한화 수강료 50%(D/C) 교재 15%(D/C) |

합격배출 1위 교수진

영어 미발회

- 경험 영어 70% 합격취우
- 폭박 영어 듣기 강의
- 강의경력 15년

경찰학도반

- 신경찰 경험기본 직장
- 남부 경찰대학 전임
- 광주대기 경찰학원 전임

합법 허문표

- FIRST최강 합법 직장
- 노력전 한국경찰 전임
- 광주대기 학원 전임

수사 차주운

- 강의경력 22년
- 광주 순천대인 전임
- 광주대기 경찰학원 전임

형소법 김현중

- 사(치)최합격
- 신경찰 원년 경수강사 10년 경력
- 형소법재판장 특별교과

www.gmega.co.kr
226-5050

목 장 용 지 금 매

- 위 치 :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 목장용지 : 6,390㎡(1,933평)
- 대 지 : 476㎡(144평)
- 총 계 : 3,734평
- 건 평 : 2,350㎡(약700평)건사, 돈사, 주택(104㎡) 버섯재배사등
- 매 도 가 : 1억7천만원 (은행대출 1억 포함)

연 락 처 ☎010-3617-8810

= 합격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학원! , 無等과 만나세요!! =

7.9級 공무원 **소직렬**

30.40 주부반모집합회 해교서관감법점마철교보보간복소기 합 후 소방인력 8395명 출원한다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 시험일 : 국)9급, 매년 4월 / 7급, 7월 시험
- 채용인원 : 7.9급 국가직 3~4천명, 지방직 4~6천명

개 강

6월 1일 (주야 24시간)

본 학원 강의 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 세법, 회계학, 인사법, 민사법, 형법, 경제학
- 교정학, 복지학, 소방학, 법, 공무원학, 상식, 기타

= 주간반 2개월, 야간반 3개월 완성 =

www.mdgosi.co.kr
222-4560

SINCE 1965 학원설립인가

44년 전통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광주지역 3,200여명 1회~19회까지]

여성 최고의 전문직 아파트관리소장 **주택관리사 9월 20일 시험**

대 개 강 **6월 1일** (첫전도 시작)

국비지원 선착순

직장인을 위한 수강료 환급과정

광주고시학원

본 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현단원 ☎ 971-0002 광주은행 현단점 4층